

대학생의 현실참여

정 영 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현실참여의 의미

대학생들이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대학 사회도 하나의 엄연한 현실인 만큼,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든 간에, 대학생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참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현실은 강의나 실험 또는 독서활동이 전개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바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현실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강의·실험·독서 이외의 활동영역의 참여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학생운동, 사회·시

민운동 또는 정치운동 등이 포함된다. 대학생들은 현실에 참여해야 하는가?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2. 현실참여의 필요성

강의나 실험 또는 독서를 통해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작동원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 삶이 풍요롭도록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이 방금 언급한 대로 현실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영화, 록음악, 섹스, 동성연애, 배낭여행, 컴퓨터, 인터넷, 대학축제, 백화점 쇼핑, 그녀의 치마선, 그리고 당신의 눈길... 이러한 것들은 저 넓은 사회의 그 어떤 영역에도 깊숙이 긴박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들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거리들, 그것들에 다름 아니다... ‘타도하자 〇〇〇 정권’, ‘노동해방’ 등과 같은 설익은 선동구호로 자주 ‘선량한’ 학우들과 노회한 〇〇당 총재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어떤 정파들조차도 자기들의 대중강좌 커리는 ‘성정치’, ‘록음악’, ‘대중문화’ 따위로 채우고 쓴다.”

인용문은 Y 대학의 91학번 학생이 최근의 대학생과 학생운동을 평가한 글의 한 부분이다. 이 학생은 최근 대학생과 학생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당대를 사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무형의 증인석, 배심원석, 방청석을 통해 마주하며 자신을 심문하는 것이 제외된 채 기존의 정체성 안에서만 자기성찰을 하고 있다. 이런 류의 자기성찰은 자기(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자기’(의) ‘성찰’일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다른 어떤 사회적 주체가 아니라 뽀띠부르주아 지식인의 전형인 대학인들의 경우라면, (학생회에 의한: 필자) ‘자기성찰’적 운동의 강조는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자기성찰의 방해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최근 대학생과 학생운동은 현실에 참여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표현(예: 음주, 연애, 록카페 출입, 옷치장 등)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대학생과 학생운동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앞의 언명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뒤의 언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나아가 어쩌면

우려조차 표명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대학생이 반드시 강의실이나 도서관 또는 실험실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비단 ‘비판적’ 지식인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현실 또는 실천과 유리된 이론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창한 논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작년 대학교육의 개혁문제가 한창 매스컴에서 언급될 때 기업체에서 요구한 것만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친 것들은 현실에서 곧바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졸업생에 대한 교육을 기업이 완전히 새로이 해야 했다. 대학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실에서 즉각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결코 캠퍼스 내에서의 활동이나 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현실에 대한 관심과 접촉 또는 직접참여 속에서 현실이 요구하는 바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실천)방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사회의 조직과 운영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실이 가장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 특히 인문·사회과학도에게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공계 학생들이 기업체의 공장이나 연구소에 가서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하듯이, 인문·사회과학계 학생들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연과학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실용화될 수는 없지만 물질적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실용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인문·사회과학도들도 기득권층의 반발

• 등으로 지금 당장 현실화될 수 없지만 규범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실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기성숙을 위한 노력이 현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배제한 상태로 진행할 경우, 그 지식은 실생활에 사용될 수 없는 무용지물이거나 자신의 욕구만을 위한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은 현실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의 차이를 인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현실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현실참여의 조건

규범적으로 볼 때 대학생이 학생운동은 물론 정치운동이나 시민운동 등 현실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항상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대학생들이 현실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학생의 연령층이 갖는 독특한 심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

우선 심리적 조건을 보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학생들은 성장과정의 특성상 기존 체제나 질서에 도전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도전적인 성향이 대학이라는 사회가 갖는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인 분위기, 이상

주의적 경향과 군집성 등으로 말미암아 대학생들의 청소년기적 저항심리가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심리적 조건 때문에 대학생들은 현실의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형태의 현실참여를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현실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조건을 보자. 얼마 전까지의 우리 사회와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건으로, 학생조직만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조직이 캠퍼스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3세계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말미암아 대학 캠퍼스의 바깥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거나 정치조직을 만드는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캠퍼스 내에 근거를 둔 학생조직들은 이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정치적 자유를 구가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조직화와 동원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 만큼 일반시민들도 학생운동의 현실참여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의 다른 측면은 사회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만큼 학생운동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반적으로 방금 지적한 심리적 조건을 가진 대학생들은 현실참여에 대한 유혹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심리적 경향과 사회적 조건이 대학생들의 현실참여를 자극하기는 하되, 대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현실참여를 지향하게 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캠퍼스 바깥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다. 학생들의 저항심리가 기성질서에 대한 집단적 조직적 도전으로 표출하게 하는 객관적 조건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 타성에 젖어 무력한 기성정치, 전쟁 개입, 경제 위기 등 사회 전반적인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대학생들의 현실참여가 강한 정치지향성과 나아가 체제변혁적인 지향성을 갖게도 한다. 우리나라의 4·19 혁명이나 '87년 6월 민주화투쟁이 그랬고, '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과 민권신장운동, 프랑스의 '68년 혁명 등도 그랬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현실참여는 문화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거나, 아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지향성을 보이고 어떠한 유형의 현실참여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현실참여의 역사와 결과

근대사회의 성립 이후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대학생들이 도전적인 현실참여를 추구한 예가 결코 드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생들의 현실참여가 반드시 사회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이 현실에 참여해온 것은 1960년대 이후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였다. 1848년 독일 혁명 당시 대학생들은 교수 등 다른 지식인층과 함께 혁명을 주도했다. 학생들이 내세웠던 절대왕정에 대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주장과 민족주의적 경향은 이후 독일 통일뿐만 아니라 이웃한 이탈리아의 통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은 서구의 민족주의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민족해방과 독립투쟁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에서도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을 때, 선진국의 학생들은 타성에 젖은 기성정치에 반기를 들면서 격렬한 시위를 이끄는으로써 드골 정권은 붕괴 직전으로 갔으며 안보 파동의 장본인인 일본의 기시 수상은 사임해야 했다. 그리고 북쪽으로 월남전을 확산시켰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학생들의 반전시위로 재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화투쟁에서는 물론 일제하 독립운동에서도 학생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커다란 정치변동이 있을 때마다 현실정치에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도 학생들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문화를 전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1960년대 미국의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형성한 여성해방운동이나 전위예술운동 등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사회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생들은 현실정치나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성세대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의감과 정열을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오히려 위기와 불명예를 가져다 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 이후 독일이나 이탈리아 학생들은 민족주의 의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 파시즘과 나찌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87년 민주화투쟁에 기폭제 역할을 한 기여도 했지만, 이후 대중적 정서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이념과 투쟁 일변도의 방식으

로 말미암아 기성세대의 경계심을 자극,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했다.

대학생의 현실참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유형의 현실참여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대학생의 현실참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적인 선택과 노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참여 상황과 이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내려보도록 하자.

5. 최근 한국 대학생의 현실참여 현황과 평가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체로 '91년 상반기를 분기점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91년 상반기까지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격렬한 시위를 동반한 정치 참여방식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학내의 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변화는 '92년 대선과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급기야는 정치집회에의 참여는 물론 학생회에 대한 관심조차도 잃어버리고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묘사하듯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은 전국의 그 어느 대학보다 운동권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93년에 접어들면서 정치 집회는 물론 학생회 발대식(해오름식)에

참여하는 학생도 극소수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막걸리집이나 소주집이 주종을 이루었던 후문가에 '카스타운', 'OB타운' 등 국산 맥주집은 물론 성조기를 내건 맥주집도 영업을 하게 되었다. 노래방, 비디오방, (옛날식 다방이 아닌 신세대풍의) 커피집, 부페집, 볼링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신세대풍의 음·식료점과 오락장은 학생들로 항상 혼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의식과 취향의 변화에 따라 학생운동의 방향과 방식도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화염병과 석파이프 그리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거리시위는 물론 선동성 구호로 뒤덮힌 학내집회조차도 회피하였다. 대신 각종 오락행사와 심지어는 옷 바자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회 출범식을 끝내면서 이전 같으면 으레 진행했던 교문투쟁이 없어진 지는 오래고, 대신 국악 연주, 제기와 병풍 그리고 방석을 갖추고 전통양식에 따른 개막고사, 유명가수 초청공연 등으로 장식하였다.

운동방식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운동방향이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백혈병 학우돕기운동'을 벌였고, 충남대 여학생회는 고아원·탁아소 돕기 바자회를 열었으며, 이화여대는 '우유팩 분리수거'를 이끌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이나 전통적인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학생회들이 대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훨씬 '부드러운' 목적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학생운동의 목표나 방식의 변화가 일반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지향적인 성향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현실참여를 방지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의 학생운동이 추구했던 현실참여의 내용과 방식만이 바람직하다거나 최근 대학생들이나 학생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의 현실참여의 방향이나 방식 중에도 잘못된 것이 있고, 최근의 방향과 방식 중에 바람직한 것들도 있다. 방금 언급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운동 또는 공명선거운동 등은 앞으로 학생들과 학생운동이 적극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할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대학생과 학생운동의 이러한 현실참여 유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진한 편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려는 학생회는 이전의 방향과 방식을 고수하려는 학생들로부터는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지향적인 학생들로부터는 '대중성이 부족하다거나 아직도 정치성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과 학생운동이 최근에 들어 급격한 변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 변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의식과 학생운동, 즉 대학생의 현실참여의 방향과 방식을 변화게 만든 현실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우선 변혁지향적인 학생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를 들 수 있다. '91년 소련·동구의 사회주의 실험 실패는 일반학생들은 물론 학생회 간부들에게도 궁극적 지향점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각종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식인 사회를 풍미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 소

개된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예를 들면, 데리다, 들뢰즈, 가타리 등-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이 생성된 프랑스 사회의 독특한 토양에 대한 천착이 없이 이론만 소개되었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종속심화로 한국의 경제발전(대중의 생활 향상)과 정치민주화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대다수 운동권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일정을 밟아 갔고, 경제도 끊임없이 팽창하여 상당수의 노동자들조차도 자가용과 외식을 즐기고 '아'제국주의의 호칭이 나올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학생들이 무시해 왔던 시민운동단체가 정부와 언론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측면 지원하여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운동의 개입 없이도 학생운동의 목표가 상당히 달성되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한국 경제는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그에 따라 중산층의 증가와 노동자들의 중산층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변혁지향적인 이전의 학생운동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대학생들의 계급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안정지향성이 강한 중·상층 출신의 비율 증가를 가져와,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운동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 학생운동 측에서 '변혁의 주체'로 상정했던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조직을 확립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경험과 교섭 기술도 확보하여, 이제는 더 이상 대학생 등의 지식인 층으로

부터 적어도 이전과 같은 내용과 방식의 지원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대학생 또는 학생운동이 자부했던 '전위'의 역할이 의미를 상실하거나 적어도 일반학생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방금 논의한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대학생의 의식과 학생운동의 변화는 학생운동 지도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구조적 역사적 힘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역사적 힘이 대학생의 현실참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역사적 힘이 특정한 방향의 현실참여 방식만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 정착된 한국 사회의 조건들은 이전과 같은 목표와 방식의 현실참여(구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대중폭력적인 방식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것)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른 유형의 현실참여는 여전히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앞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 추구해야 할 현실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6.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참여 방안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표(취업이나 출세 또는 쾌락) 추구에만 안주할 수 없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따른 약자의 희생 증가와 그에 따른 빈부격

차의 심화 그리고 외국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정치부패와 최고 지도자·여당에 의한 전횡, '불행한' 과거의 명쾌한 청산 미흡, 환경파괴, 성 범죄나 마약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캠퍼스 바깥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부정적이다. 기성 정치인과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자체보다는 자신의 권력유지나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기업인이나 각계 사회지도자들은 기득권자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구조나 제도로 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약자의 입장에 있는 노동운동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아직까지는 생산영역 바깥의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대학사회가 갖는 독특한 조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민주화의 완성에 필요한 다양한 실천을 들 수 있다.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중요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구조와 보스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당구조의 민주화, 이 중에서도 후자가 급선무이다. 정당의 당내 민주화 없이는 국회의 행정부(대통령)에 대한 견제·균형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학생운동은 정치체제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기보다는 적

극 참여하여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루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주과제로 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환경파괴와 핵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무임승차의 문제(free-rider problem)로 말미암아 해결을 위한 동원이나 조직화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한 부분인면서 가장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적극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셋째, 조직화가 어렵고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층(빈민, 고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실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의 실질적 민주화가 선결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성 정치구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학생회의 대의원회에 대한 우위, 대의원회의 구성의 비민주성 등)과 운영방식(형식화 내지 비민주성)을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현실참여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자신의 노력이 우선적이지만,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도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을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영태/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오스틴)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정당정치론』(공저), 『한국노동자 정치의식 연구 II』, 『현대한국정치론』(공저) 등이 있고, “김영삼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정치활동-노총”,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정치활동”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